올빼미 쇼핑족 북적 9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에는 무더위를 피해 야간쇼핑을 즐기는 '올빼미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최근 광주·전남 유통업계는 때이른 열대야로 인해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증권사 '돈방석'

상위 7개사 7,800억 이익 챙겨

올해 들어 증시 급락으로 주식과 펀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은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은 최근 내놓은 증권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상위 7개 증권사들이 올해 1~6월 벌어들인 순이익이 7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50여개인 전체 증권사의 순이익 규모를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코스피가 20% 가량 하락했고, 국내 주식형펀드도 10% 이상의 손실을 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만 '피눈물'을 흘린 셈이다.

회사별 순이익 전망치는 삼성증권이 1천8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투자증권 1천633억원, 대우증권 1천349억원, 한국투자증권 1천381억원, 미래에셋증권 862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7개사의 2008회계연도 1분기(4~6월) 순이익은 4천159억원으로 전 분기(1~3월)의 3천712억원에 비해 10.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증권사는 1조원대에 육박하는 수탁수수료와 펀드판매 수수료에 힘입어 이 같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7개 증권사가 상반기에 벌어들인 주식중개 등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9천142억원, 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탁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곳은 대우증권(1천727억원)이고 이어 삼성증권(1천595억원), 현대증권(1천575억원) 등 순이었다. 펀드판매 수수료는 미래에셋증권(1천1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투자자 '피눈물'

주가 급락 증거금 부족 계좌 속출

코스피가 10일 장중 1,500선이 붕괴하는 등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통해 투자한 일부 고객들은 객장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환율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주가폭락에 성난 개미들** = 타워팰리스가 있는 서울 강남의 모 증권사 지점에서는 9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오후 들어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자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투자에 나섰던 50대 남성이 증권사 객장을 찾아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손절매 권유를 하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특히 서울시내 증권사 지점들 가운데는 주가급락 여파로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들이 20~30개씩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선 펀드환매 움직임…대체로 관망세** = 최근 급락 장세가 이어지자 펀드 환매를 놓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 타이밍을 놓쳤다는 판단에 따라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큰 손' 고객들을 중심으로 일부 환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잠실지점 신무석 차장은 "목돈 투자자들 가운데 펀드 수익률이 -10% 안팎인 고객들 사이에서 일부 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美 포천지 발표 세계 500대 기업

한국 15개社로 늘어

삼성 38위·LG 67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공개한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한 개 많은 15개 한국 기업이 명단에 등재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6위에서 38위로 8계단 올랐으며 LG와 SK도 각각 6계단, 12계단 상승한 67위와 86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대차는 82위로 6계단 내려갔다.

201~3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총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 역시 작년의 3개에 비해 증가했다. 세계 철강산업의 호조를 배경으로 포스코가 244위에서 224위로 20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이 각각 245위와 247위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명단에 진입한 GS홀딩스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267위와 278위, 27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외에도 지난해 374위였던 한화가 329위, 422위였던 현대중공업이 378위, 388위였던 KT가 387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해 매출 3천788억달러와 순익 127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2년째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연합뉴스

韓銀 "물가잡겠다" 금리 인상 '만지작'

금통위 기준금리 연 5.0% 유지 … 11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10일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정책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질적인 한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통화정책을 한은의 핵심목표인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또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그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인상 압력 등 2차, 3차로 파급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관성이 있는 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분야에서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승 압력이 있다"며 "올 하반기 중에 물가상승률이 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00%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5.0%로 올라간 이후 9월부터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발표문에서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원유가격 상승,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됐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분양가 상한제 껍데기만 남나

국토부, 건축비 이어 택지비도 인상 추진

땅값 감정가 책정땐 포기 업체 많아 매입가 기준 변경 시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분양가 양대 구성 요소인 건축비를 올려 준 데 이어 택지비도 올려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이 자체 매입해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택지비를 매입가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감정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상 주택은 민간이 택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이며 공공택지는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다 포함된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기본형 건축비도 4.40%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2%안팎에서 오른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업체들의 신청을 이미 받았으며 8월중에 신청업체 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해 이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가산비를 올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하층을 많이 짓는데다가 환기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이처럼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9월에 도입됐지만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한제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땐 가산세 60%

국세청 자료상 집중 단속

세금을 줄여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더 높아진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이 같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10%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모두 50%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뒤에는 자료상 색출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추출, 분석한 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LED 등 IT산업에 정부 5년간 3조5천억 투입

정부는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등 정보기술(IT) 산업에 2012년까지 5년 동안 3조5천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명박 정부의 IT산업 정책인 '뉴 IT 전략' 발표회를 갖고 ▲전체 산업과 IT 융합 ▲IT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 ▲핵심 IT산업 고도화 등 3대 IT 전략을 제시했다.

뉴 IT 전략에 따르면 전체 산업과 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IT 융합포럼'을 구성하고 IT 융합 기술개발을 현재 5개 분야에서 2012년까지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조원 이상의 IT융합산업체 10곳을 'IT융합센터'로 지정해 육성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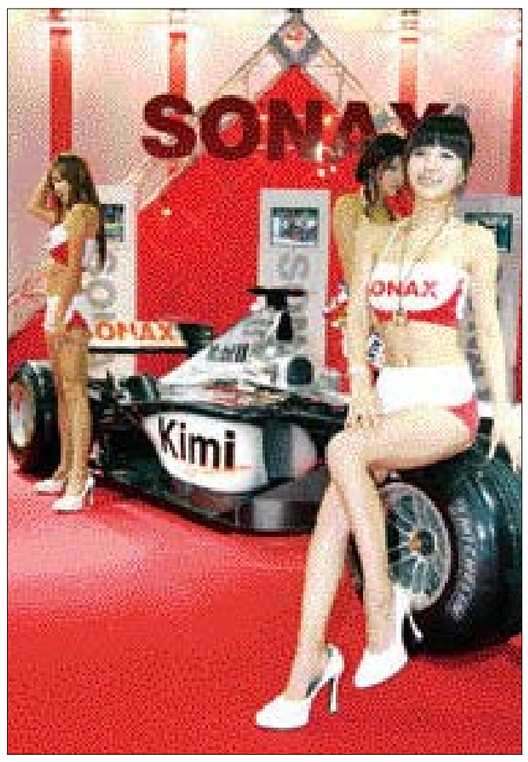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IT산업을 활용키로 했다. 가전·정보통신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5년 간 2천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전력 소모가 적은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LED 공동펀드를 2012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또 1천71억 원을 들여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건립, U-헬스 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정보상무점	판매/ 매장관리/ 지원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2	062-0527-5400
㈜화인코리아	[생산관리/공무/식품개발] 정규직 추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1-330-4523
고려시멘트㈜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519-1562
아이지미술	4년제 미대졸 미술방문교사	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15	062-382-7179
㈜누리산업개발	경리/총무 사무직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56-1004
㈜HK	정규직 영업관리(필터관련) 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7/16	062-943-8311
디케이산업㈜	구매/자재 경력직 사무원	고졸/경력2년	1600~1800	07/16	062-953-0885
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	2008하반기 뷰티매니져, 강사 및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233-6668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상담직군(광주고객지원센타)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17	062-370-6800
한백정보통신	사무, 전산, 고객관리 사원(알바)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7	010-2615-5883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653-5828
㈜서광주센타	가전제품 판매 및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8	062-372-9800
궁전제과	[궁전제과진월점]판매 영업 및 매장관리, 주방보조구함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671-347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서울 오토살롱'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 '2008 서울 오토살롱'에서 도우미들이 최고 시속 350㎞를 능가하는 380억원짜리 F1 레이싱 머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